

교구중심제 실현 방안 논의 세미나 열린다

불교사회학, 22일 전법회관에서

교구중심제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오는 10월 22일 오후 4시 조계종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교구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종단 현실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구 운영의 틀을 정리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교구(중심)제 실현을 위한 본사의 기능과 역할'을, 박재현 화정문화아카데미 사무국장이 '교구의 바람직한 운영(인사, 재정, 사업) 방향'을, 박문수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이사가 '타종교(가톨릭)의 교구제 운영 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중앙·교구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덕문스님과 총무원 총무국장 명본스님이 토론자로 나선 예정이며, 박문수 연구이사가 발표하는 타종교 사례에 대한 토론은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서양철학·불교사 등 동영상 강의 강좌

조계종 교육원 이리닝 강좌 확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승가교육 일상화와 평생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리닝 학습센터(edu.buddhism.or.kr)에 교양강좌인 '21세기 불교를 철학하다'와 기본교육기관 필수교과목 '한국불교사' 동영상에 탑재된다.

'21세기 불교를 철학하다'는 미분야 카데미가 지난 7월 10일 개강한 대중인문학 강좌로 '강남발 불교철학 열풍'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매 강좌마다 100여 명에 이르는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

권오민 경성대 교수가 '불교와 지성', 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종관논리와 역설', 엄승준 원광대 교수가 '칸트의 초월이상학과 유식불교' 등을 강의했다.

교육원은 '21세기 불교를 철학하다' 강좌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계종 스님이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이리닝학습센터에 탑재했다. 앞으로 2주에 한 차례씩 2~3개 강좌를 업로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본교육기관 필수교과목인 '한국불교사' 강좌도 연내 업로드 한다. '한국불교사'는 고영섭, 이철현, 김용태, 김경직 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화합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조계종 중앙총회, 16일 종단 화합 조치법 공청회

“종단의 진정한 개혁은 내부 점검부터 시작돼야 한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동료 수행자를 외면하는 것은 화합을 포기하는 일이다. 승가 운영의 최고 이념인 화합 역시 저버리는 일이다.”

이처럼 동국대 교수는 10월 16일 조계종 중앙총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조계)가 개최한 종단 화합 조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종단 화합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날 '종단 화합 조치의 필요성' 제하의 발제에서 승려법 46조의 멸빈 기준과 1994년 개혁 당시 멸빈자에 대한 과정이 올바르지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승려법 46조에 대해서는 “불조에 대한 불경 행위가 무엇인지, 도당을 형성한 반불교적 행위가 무엇인지 멸빈 기준이 애매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멸빈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1994년 개혁 당시 9명의 승려들을 대상으로 멸빈 징계가 내려졌을 때의 승려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멸빈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당시 9명의 승려가 자신에게 가해진 멸빈 징계에 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절차를 거쳤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구족제 멸쟁법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문제 당사자를 출석하게 해 죄상을 물어야 한다”면서 “일반사회법에서도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재판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가 있다. 당시 멸빈된 9명 승려의 죄는 인간으로서 최소한 권리도 못 누릴 정도의 대역죄였나”고 반문했다.

이어 “화합의 진정한 의미를 고려하지 못한채 이뤄진 1994년 종단 개혁의 마무

리 작업은 분쟁의 씨앗을 남기고 지금과 같은 사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현 스님 집행부에 느꼈던 분노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상수단을 동원했던 점은 고려하지만 개혁 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그 가치가 퇴색해 버린 감은 없는지 이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현 스님 재심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교수는 종단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종단 개입 방법으로는 특별법 제정이나 호계원법 제54조의 특별재심 청구 활용이 제안됐다.

이자리 교수, 종단 적극적 개입 요구

“특별법 제정·특별재심 등 활용해야”

“멸쟁법 의거 징계했다” 문제 제기도

리 작업은 분쟁의 씨앗을 남기고 지금과 같은 사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현 스님 집행부에 느꼈던 분노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상수단을 동원했던 점은 고려하지만 개혁 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그 가치가 퇴색해 버린 감은 없는지 이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현 스님 재심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교수는 종단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종단 개입 방법으로는 특별법 제정이나 호계원법 제54조의 특별재심 청구 활용이 제안됐다.

이 교수는 “1994년부터 1998년, 최근의 선학원 사태에서도 멸빈자가 발생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면서 “의현 스님 재심 판결 논란이 승가 모습을 속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중앙총회의원 만당 스님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화합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당 스님은 “역대 종정 스님과 원로 스님들이 1994년 멸빈자를 사면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누차에 걸쳐 중앙총회에 요구하는 뜻을 이제 종도들이 헤아려야 한다”면서 “승가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을 합리적 해결 방법을 찾아 해소시킴으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호계원의 특별재심청구 확장 방안과 더불어 종헌 개정용 화합 조치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만당 스님은 “승가 공의가 이뤄진다면 멸빈자 사면을 금지하고 있는 종헌 128조 개정을 통해 사면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다”면서 “개정에 문제가 있다면 종헌 부칙에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면할 수 있도록 종헌 개정을 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조계종단 분규와 징계의 상관성'에 대해 발제했으며, 토론자로 중앙총회의원 선광 스님, 권오영 법보신문 기자, 군종특례교구장 정우 스님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인도 불자 네트워크 중심돼달라”

인도 하원의원들, 13일 자승 스님 예방서 요청

“최근 인도에는 기독교계의 선교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구호활동을 비롯해 기술학교, 어학당 등을 통한 다양한 복지·개발 사업을 벌이면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변질된 불교 개종 바람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불교계에서 협력을 요청합니다.”

인도의 하원 국회의원인 우땃 랏 국회의원은 10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과 인도 불교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땃 랏 국회의원은 인도에서 소수인 불교신자로 역시 불자인 텔리 소드세 위원인 시마 랏 위원과 함께 예방했다.

이날 우땃 랏 국회의원은 자승 스님에게 한국 불자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심 역할을 해줄 것과 인도 성지를 중심

으로 한 개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땃 랏 국회의원은 1960년대 인도에서 불었던 암베드카르의 네오부디즘 운동을 예로 들며 현대 인도에서 다시금 불교개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국회 정각회를 중심으로 인도의 불자 정치인들과 모임을 갖는데 노력하겠다”며 “양국 정치인들이 함께 한국 인도 친선에도 나서는 한편 불교 개종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은 “40여년 전 발원한 100만 개종의 목표가 꼭 이뤄질 바란다”며 “한국불교도 다각도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우땃 랏 국회의원에게 연꽃등 선물을 전하고 있다.

“본분사 잊지 말고 부단히 정진하라”

선학원, 10일 사미·사미니 수계산림 회향

선학원이 5명의 자체 첫 예비수행자를 배출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0월 10일 부산 금정사 금강계단에서 '제1회 사미·사미니 수계식 및 회향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계식에서는 진성, 공공, 성일, 도경, 원룡 등 다섯 명의 사미·사미니가 전 계대화상 철우 스님으로부터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수계식에 이어 열린 회향식에서 철우 스님은 “어제 들던 소리와 오늘 듣는 소리가 같은지 다르지 대충은 정신차리고 잘

들어야 한다”고 교언을 내렸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수계식에 앞서 진행된 ‘선학원사 강의’에서 출가란 일신의 영달과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고 죽음을 벗어나 해탈의 경지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출가자로서 본분사를 잊지 부단한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선학원 사미·사미니들은 10월 5일 입재해 엿새 간 기본 위의 습의, 엄불 습의, 의식문, 초발심사경문 등 예비수행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신성민 기자



재단법인 선학원은 10월 10일 부산 금정사 금강계단에서 '제1회 사미·사미니 수계식 및 회향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 조직개편 이뤄진다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감사실 설치 등 골자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 예고

11월 중앙총회 회의 상정 예정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이 시대 변화에 맞는 총무행정을 위해 조직 개편에 들어간다.

조계종 기획실은 10월 15일 총무원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총무원장 직속 감사실 설치 △중앙·교구 균형발전을 위해 사찰 업무를 총무부로 일원화 △재무부 소관 업무인 사찰 분담금 및 예·결산 업무를 총무부로 이관 △홍보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기획실 산하 감사국을 감사실로 승격해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둔 것

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부는 대각회 특별교구 지정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은 재단법인 대각회의 법인등록과 대각회 특별교구 지정에 따라 마련됐다. 제정안은 특별교구의 명칭과 소재지, 소속사찰, 소속 사찰 주지 임명, 특별교구 본사주지, 분담금소속사찰의 권리와 의무, 분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각회 특별교구는 서울 대각사(서울 종로구 봉익동2)에 두도록 했으며, 대각회에 재산과 사찰을 등록한 사찰을 '대각회 특

별교구 소속 사찰'로 규정하고, 사찰 명칭 앞에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대각회 소속 사찰 주지 임명의 경우 대각회 특별교구본사 주지의 요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명시했으며, 대각회 특별교구 본사주지 역시 대각회 이사회에서 추천해 총무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대각회 본사주지 자격은 산중총회법에 명시된 본사주지 후보 자격에 맞춰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70세 미만의 승려'로 했으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구 지정에 따라 종단에 중앙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26일, 대각회 특별교구법 제정안은 25일까지며 두 법안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 열리는 중앙총회 정기회에 상정된다.

신성민 기자

성철 대종사 열반 22주기 추모참회법회

성철 큰스님 열반 22주기(양력 11월 1일, 음력 9월 20일)를 맞이하여 성철 스님 문도회는 '성철 대종사 추모참회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참회법회는 10월 28일 입재하여 만 4일동안 4만 8천배 참회를 백련암에서 올리며 10월 31일 사리탑전 삼천배, 11월 1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의 추모다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법석에 수희동참하시어 성철 큰스님의 '자기를 바로 보라', '남을 위해 기도하라', '남 모르게 남을 도우라'는 가르침을 실천하여 마음에 큰 공덕을 쌓기를 바랍니다.

- 주요일정
 - 10월 28일(수) 오전 7시 : 입재식(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 10월 31일(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 사리탑전 삼천배
 - 11월 1일(일) 오전 7시 : 회향식(해인사 백련암 고심원)
 - 11월 1일(일) 오전 10시 : 성철 대종사 추모다례(해인사 대적광전)

문의 서울 백련불교문화재단(02-2198-5101, 5372) 부산 고심정사(051-464-0068) 합천 해인사 백련암(055-933-5775, 055-932-7300)

해인사 백련암 · 성철 스님 문도회 www.sungchol.org

